



제 36 호

2017년 1월 15일

1월,4월,7월,10월 발간

Contents

1.TOP

- News

2.INFO

- 인명안전 위한
문제점 개선점

3.JOIN

- 2017년
각오한마디
- 좋은 소식

4.WITH US

- 필리핀 소식

Saehan Marine NEWS LETTER

2017년 1월 겨울 호
(통권 제36호)

발행일 2017년 1월 15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8 12층(역삼동,안재타워)
전 화 02-784-9278
팩 스 02-785-4684
홈페이지
http://www.shmarine.co.kr

NEWS

Happy New Year 2017 with Full of Great Achievements



New year gives us a chance to renew our mind. Saehan Marine may have been through a lot during the past year. In 2017, we will face many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of the business. No one knows how long the economic recession will last. But we believe that we never give up when we face with adversity and always respond. In order to move forward, all the staff of Saehan Marine must keep in mind that "Safe Operation" is the key word. Saehan Marine wishes the best of health and happiness for all the staff and your families. **SMNL**

•2016 UNITRA, FIL-SMS Christmas Party



Every year, our company visit to Philippine manning company for improving crew's ability and welfare. In this year, we visit the philippine from 5th to 8th Dec and have a meeting for 2017 company's policy and award "Best crew prize" from this year, we adapt re-joining allowance for good performance both company and crew.

We appreciate to all the crews and hope to be always happy you and your family with Saehan Marine. **SMNL**

•Annual Survey



<Saehan Estrella>



<Saehan Wallaby>



<Saehan Mirinae>

On the 4th quarter, 3 vessels had annual, intermediate survey. M/V Saehan Estrella was carried out intermediate, docking, No.1 aux. boiler survey from 13th. Jan. 2017 to 21th. Jan. 2017 at Yeosu Ocean Co., Ltd in Yeosu, Korea.

M/V Saehan Wallaby was carried out special, docking, No.1 propeller shaft, No.1 aux. boiler survey from 14th. Jan. 2017 to 23th. Jan. 2017 at Yeosu Ocean Co., Ltd in Yeosu, Korea.

M/V Saehan Mirinae was carried out annual survey from 22th. Jan. 2017 to 23th. Jan. 2017 at South outer anchorage in Busan, Korea.

The Vessel's repair has completed successfully. We thank all the crew members who have worked hard for the safety of each vessel. **SMNL**

•Saehan Marine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채용

Saehan Marine의 운항관리의 업무 효율을 최대화 하기 위해 서울 본사의 부서를 개편하였습니다.

Chemical, Gas 팀으로 나뉘어져 있던 부서를 Chartering, Operation, Agent 부서로 개편하였고, Agent부서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신사현 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신사현 사원
-1986년 생
-한성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Seatrade
Shipping(Canada) 근무

Chartering : 신재석 부장(싱가포르 근무), 오경석 차장, 전성일 과장
Operation : 신문환 과장, 정광희 대리, 조송열 주임
Agent : 정지은 대리, 신사현 사원

2017년 신규직원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SMNL**

INFO

•인명 안전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점

- 권용대 감독 / 새한선관(주)

바쁜 운항 스케줄과 산적한 업무로 인하여 안전조치가 등한시 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아래와 같이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1. 밀폐 구역 출입 시 안전 수칙 미준수

1) 밀폐 구역의 식별

- 밀폐 구역에 대한 식별을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일부 선원들이 출입하는 장소가 밀폐구역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밀폐 구역을 명확하게 식별하여 사관 및 부원 식당 등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통해 밀폐 구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밀폐 구역 출입 시 견시원 배치

- 밀폐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독성가스 중독이나 질식 등의 위험이 있어 빠른 구조가 필요로 하지만 밀폐구역 출입 시 견시원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밀폐구역 출입 시 절차에 따라 견시원을 배치하고 특히, 출입자 본인이 견시원 배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스 검지기의 사용

- 밀폐 구역 출입 전 산소, 폭발성가스 및 독성 가스의 검지가 필수적이거나 가스 검지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무색 무취 가스의 경우 경험에 의해 위험성을 식별할 수 없고 조금의 흡입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가스들이 있으므로 밀폐구역 출입 전 반드시 가스측정을 하고 출입 시에는 개인용 가스 검지기를 소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 안전장구 미착용

1) 적합한 개인용 안전장비의 미제공

- 화물에 따라 적합한 케미칼 장갑 및 고글 등 각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장비가 제공되지 않아 화물 작업 시 면장갑 및 부적합한 고글을 착용한 채로 작업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작업 전 적합한 안전장구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 귀마개 미착용

-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사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귀마개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못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실 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기관실 출입 시에는 항상 귀마개를 착용하여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3) 안전벨트 미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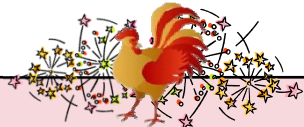
- 마스트 항해등이나 작업등의 정비 또는 교체 작업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고소작업을 하여 위태로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선박은 철판으로 이루어져 추락할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 벨트 착용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소 및 선외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낙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안전은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 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임을 가슴에 새기고 하선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안전에 대해 생각하며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SMNL**

좋은소식

Welcome to Onboard!



승선을 축하합니다.				
소속선박	이름			승선일
SHE		우유상	1항사	10월 5일
SHG		박찬호	3항사	10월 7일
SHW		차창식	2항사	10월 9일
SHH		3기사	황유빈	10월 29일
SHG		2항사	허 인	11월 21일
SHW		선 장	김영규	11월 22일
SHF		기관장	방차근	11월 25일
SHG		실항사	최창훈	12월 10일

SHF		실기사	손진혁	12월 15일
SHC		실항사	도재욱	12월 19일
SHC		실기사	권순력	12월 19일
SHF		선 장	송석경	12월 27일
진급을 축하합니다.				
소속	이름			진급일
SHF		홍동진	1기사	12월 14일
새한마리타임		민석진	부 장	1월 1일
새한마리타임		최봉규	차 장	1월 1일
경영지원		양서영	주 임	1월 1일
해무지원		윤보경	주 임	1월 1일

JOIN

선원들의 2017년 신년 각오 및 새해 포부 !!

M/V Saehan Aurora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한해는 사고 없이 안전운항 하도록 다들 노력합시다. 화이팅!

M/V Saehan Freesia



사고 없는 2017년! 안전운항 2017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안전 사고 예방하고, 안전운항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V Saehan Capella



2017년 정유년 初心不忘, 原則不忘 하여 사고 없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安全運航에 총 역량을 다짐 합니다

M/V Saehan Mirinae



전 선원 건강하시고 항시 무사고 및 안전 항해를 기원 합니다.

M/V Saehan Harmonia



2017년, 믿음과 사랑으로... 새한 하모니아, 안전운항과 무사고를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 ♪♪♪

M/V Saehan Wallaby



위험은 상시 우리 주위에 존재하므로 항상 관찰하고 보고하자. 2017년 안전운항을 위해 화이팅!

M/V Saehan Gloria



안전은 “나” 가 아닌 “우리” 라는 울타리 속에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2017년 닻의 해에는 한 울타리 속에서 기본에 충실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승조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M/V Saehan Estrella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선박 시행 목표 Zero Accident(사고 제로화), Reduce Observations Less Than 7 During Sire Inspection(메이저 검사 지적사항 7건/회 이하), Reduce Deficiencies Less Than 5 During PSC Inspection(PSC 결함사항 5건/회 이하), Zero Cargo Claim(화물 관련 클레임 제로화), Develop Near Miss at Least Once a Month(준사고 1건/월 이상 발굴) 달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M/V Saehan Chemstar



“안전은 습관화 점검!” 지난해에 정착된 “Double Checking” Slogan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점검시스템을 습성화시켜 연말에 모든 승조원이 밝게 미소 지으며 감사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hilippine Communication

“UMMI Letter”



To CCK Richard Navarro of Saehan Capella

"Hello Dad! How are you? Don't worry about us. We're ok. We love you and miss you so much daddy. Take care always and God bless you. Muaahh."

From Wife Sheila May

“FIL – SMS Letter”



To: O/S JAN RAVEN ALFARO M/T SAEHAN HARMONIA

Hello Nak! I am grateful that after all these years of hardwork your starting to earn all that you deserved. Always remain good and prioritize your health. Do your best at work at all times. Whatever may happen, we are and always be here for you. We love you!

- Mama Cora

To. OLR1 Leopoldo Selarde of Saehan Aurora

"My dear love, honey, darling, sweetheart, mahal! Advance happy valentine's day♥ For this year kami na muna ulit ng anak mo ang magkadate. We love you and we miss you. Tulad ng lagi mong sinasabi sa amin enjoy lang. Ingat ka lagi dyan God bless!"

From Wife Isabelita.



To: A/B GLENN PALULEM M/T SAEHAN CHEMSTAR Dearest Dad, Being a wife is a great things, Man is not how much wealth he acquires but in his integrity and your ability to affect those around you positively. Marriage is a life-long journey that thrives on love, commitment, trust, respect, communication, patience & companionship. And being a husband for me is everything you mean, its a colorful, its like a rainbow that full of love. Thank you Dad for all your sacrifices, for your super love, sweetness, kindness, provider, understanding, I'm so happy and bless having you in my life, let us always put God first center of our lives. I LOVE YOU SO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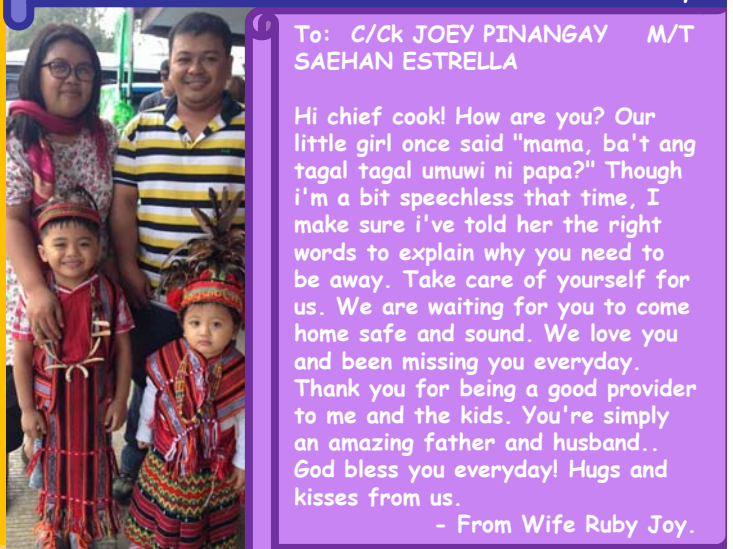
- from Wife Joy.



To CCK John Marvin Leal of Saehan Mirinae

"Dadiko if there is tomorrow when we're not together, there is something you always remember. You are the braver than you believe, stronger than you seem, and smarter than you think.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even if we're apart, you're always here in our heart. Thank you for all the sacrifices. We love you and miss you so much.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Love, Wife Joie and Children Yuan, Yuie and Yuri.



To: C/Ck JOEY PINANGAY M/T SAEHAN ESTRELLA

Hi chief cook! How are you? Our little girl once said "mama, ba't ang tagal tagal umuwi ni papa?" Though i'm a bit speechless that time, I make sure i've told her the right words to explain why you need to be away. Take care of yourself for us. We are waiting for you to come home safe and sound. We love you and been missing you everyday. Thank you for being a good provider to me and the kids. You're simply an amazing father and husband.. God bless you everyday! Hugs and kisses from us.

- From Wife Ruby Joy.